

2 일본 금융위기의 전개 방향

- (현황) 일본은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의 연쇄적 파산으로 예금이탈, 자금난 가중, 주가하락, 금융기관들의 대외신인도 하락 및 해외 차입 금리 상승 등 금융 및 경제불안이 심화되고 있음
- (원인) 일본 금융시장의 불안은 대내적으로는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부실 채권 급증과 대외적으로는 최근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등에 기인함
- (한국에 미치는 영향) 동남아 일부 국가의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과 이른바 '早期是正措置'에 따른 일본 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비율 제고 등으로 한국에 대한 단기 채무 상환 연기 기피나 既대출금의 조기 회수 등이 나타날 수 있음

○ (금융위기 현황) 일본은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함에 따라 금융 및 경제불안이 심화되고 있음

- 신용조합 등 중소 금융기관의 파산에 이어 97년에는 닛산(日産)생명보험, 산요(三洋)증권, 홋카이도 다쿠쇼쿠(拓植)은행, 야마이치(山一)증권 등 대형 금융기관이 연이어 파산하였음
 - 이러한 금융시장 불안은 일본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음
- 나아가 주가폭락에 따른 '신용하락 → 예금 이탈 → 자금난 가중'이라는 악순환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
 - 이에 따라 최근 동경 주식 시장에서는 증권·은행주를 중심으로 매도 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며 엔화 가치도 큰 하락세를 보였음
- 이러한 일본의 금융불안을 반영하여 최근 일본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가 급속히 하락하고 일본계 은행들의 차입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
 - 작년 말 런던 금융시장에서 3개월 만기 달러물에 대한 일본계 금융기관의 가산금리는 80년대 이후 최고치인 0.75%까지 상승
 - 외국 신용기관들이 일본 은행들에 대한 신용도를 저평가함에 따라 주식시장의 침체와 자금난에 따른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음

○ (원인) 일본 금융시장의 불안은 대내적으로는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부실 채권 급증과 대외적으로는 최근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등에 기인함

- (대내적 요인) 일본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난 90년 이후 거품경제의 붕괴로 엄청난 부실 채권을 떠안은 금융업계의 경영악화에 기인함
 - 일본 은행들이 지난해 9월말까지 안고 있는 부실 채권 규모는 76.7조 엔

- (5,805.3억 달러)으로 집계되었음(98년 1월 12일, 일본 대장성 발표)
- 이 가운데 회수 불가능한 여신과 회수 불가능성이 높은 여신은 각각 2.7조 엔과 8.7조 엔(총 11.4조 엔)이며 나머지 65.3조 엔은 감시가 필요한 여신으로 분류되고 있음
 - 日本銀行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감시 대상 여신 중 17% 가량이 부실화될 전망이다이어서 일본 은행들의 악성채권은 약 22조 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
 - (대외적 요인) 아시아 금융위기로 일본 금융 기관들의 부실 채권이 급증함
 - 일본 은행들의 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대출 실태를 보면, 96년말 현재 홍콩에 만 8백74억 달러를 용자해준 것을 비롯하여, 싱가포르 5백88억 달러, 한국 2백43억 달러, 인도네시아 2백20억 달러, 태국 3백75억 달러 등 이들 국가에 들어간 외국 금융기관의 전체 용자액 가운데 35.4%를 차지하고 있음
 - 통화위기의 진원지인 태국은 전체 외국은행 용자의 무려 53.5%를 일본자금에 의존하였음
 - 태국,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한 막대한 용자금이 지난 7월 이후 진행된 동남아 외환 위기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자 일본 금융기관들이 대출회수에 나서 동남아 위기를 악화시켰고 이것이 다시 일본의 금융 불안을 증폭시켰음

<일본의 對아시아 금융 용자 현황>

(단위: 억 달러)

국 별	용자액 합계	일본계 은행	점유율(%)
홍 콩	2,071.6	874.6	42.2
싱가포르	1,893.1	588.1	31.1
태 국	701.8	375.3	53.5
한 국	999.5	243.2	24.3
인도네시아	555.2	220.4	39.7
중 국	550.0	177.9	32.3
말레이시아	222.3	82.1	36.9
타 이 완	223.6	26.8	12.0
필 리 핀	132.9	15.6	11.7
합 계	7,350.2	2,604.0	35.4

자료: 日本 第一生命經濟研究所 調査資料

주 : 96년 12월말 현재, 옵션시장 포함

○ (한국에 미치는 영향) 한국에 대한 단기 채무 상환 연기 기피 또는 既대출금의 조기 회수 등이 나타날 수 있음

- 만일 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, 일본 금융기관들은 이들 국가에 대한 약 600억 달러(96년 12월 기준)의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부실 채권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임
- 大藏省이 98년 4월부터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선별적인 '조기시정 조치'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각 은행들은 이에 대비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해야 하는 상황임
 - 이를 위해 일본의 12개 대형은행중 9개 시중은행은 98년 3월 결산에서 총 5조 4천억 엔에 달하는 부실 채권을 처리키로 했음
 - 이에 따라 9개 시중은행중 도카이(東海)은행을 제외한 8개 은행의 경상 및 단기 순이익이 모두 적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
- 이로 인하여 일본 은행들이 한국에 대한 既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단기 채권의 상환 연장을 기피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, 그럴 경우 한국의 외환 위기는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큼
 - 도쿄미쓰비시(東京三菱)은행과 산와(三和)은행 등 10개 일본 은행들은 지난 연말에 한국의 채무상환을 연기해 주기로 의견을 정리했으나, 이러한 결의는 大藏省의 강력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음
 - 일본 은행들은 對韓 채무 상환 연기가 자신들의 국제 신용등급 추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상환 연기에 매우 소극적임

(정 오 영, 김 연 호)